



특별진단 2022년 제주 재도약 (4) 환경분야

반발 부딪힌 주요 현안 줄줄이 표류

재산권 침해에 국립공원 확대 계획 잇따라 후퇴
곶자왈 경계 재설정·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난관

제주지역 주요 환경 현안들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계획은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지만 그동안 후퇴를 거듭했다.

환경부는 2018년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에서 197.8㎢로 늘리는 것에 더해 우도·추자면, 송악산과 곶자왈, 해양 등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총 610㎢를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자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지역 등을 확대 지

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정 면적은 303㎢로 크게 축소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열지 못했다.

국립공원 확대 계획은 최근 또 다시 후퇴했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송악산(58만㎡) 등을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면적은 303㎢에서 289㎢로 재차 줄었다. 환경부는 이렇게 두 차례 손질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도에 공청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남은 절차

를 2년째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곶자왈 경계 재설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용역 착수 7년 만에 곶자왈 경계를 재설정 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던 36.4㎢가 새롭게 곶자왈 지대로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부딪혔다. 새로 설정된 곶자왈 보호지역 중 사유지는 65%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새로운 곶자왈 경계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토지주의 반발로 이런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해묵은 환경 현안인 하수 처리 대책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하수 대란을 해결할 대안으로 여겨온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공사업체를 찾지 못해 제주도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하수를 감당하는 도두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을 13만

t에서 22만t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두 차례 입찰이 무용찰로 유찰됐다. 도두와 함께 용량 증설이 시도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은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증설 계획 철회에 더해 동부하수처리장이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위에 들어섰다는 시설 철거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는 환경 가치가 높은 곳이어서 환경 현안도 많고, 이에 따른 갈등도 많다”며 “하지만 대통령 공약인 국립공원 확대조차도 전담 공무원이 1명 뿐이고,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로 (여러 업무를 해야 하는 구조상) 집중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이재명 캠프 합류



제주출신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58·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평화안보 국방 인재로 합류

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해군에 입관, 해군 대장,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부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임기 4개월을 앞두고 해군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부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엇그제 전역한 예비역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어려운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전쟁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캠프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여가관광산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여가·관광산업 정책 제안 플랫폼인 ‘더놀자플랫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가·관광산업 정책 제안 플랫폼 출범

민주당, 11일 출범식… 송재호 의원 상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가·관광산업 정책 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플랫폼을 마련,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여가관광산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여가·관광산업 정책 제안 플랫폼인 ‘더놀자플랫폼’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놀자플랫폼’ 상임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한정, 김병욱,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놀자플랫폼’은 코로나 시대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이 후보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의 측사를 대독한 오 의원은 측사를 통해 “반복적인 일상을 탈피, 다양한 관광과 체험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시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라며 “더놀자플랫폼이 미래의 유망한 관광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재호 상임위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여행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더놀자플랫폼이 지향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여가산업 활성화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도·도교육청 민원서비스 “미흡”

권익위·행안부 종합평가서 각각 ‘라’·‘마’ 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라’ 등급을, 제주도교육청은 ‘마’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31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됐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선정됐고, 기초자치단

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제주자치도는 ‘라’ 등급을, 제주도교육청은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하며,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 지지”

제주지역 진보정당 기자회견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택배노조와 즉시 공식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당·녹색당·변혁당·정의당·진보당 등 5개 도내 진보 정당은 1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단식농성 등 1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택배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살기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택배노동자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CJ대한통운은 노사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이 되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고 강조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법무사박성호사무소 개업인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근무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법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임하여, 2019년 1월부터 3년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대표집행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연말 임기를 마친 후 고향 제주에서 임인년 시작과 함께 법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업무개시 인사 올립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에 무탈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사오며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내내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그간 임은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지친 도민 여러분 모두 기운 내셔서 새해 소원성취 하시고 늘 평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사 박 성 호 올림

■ 개업장소

제주시 구남동4길 3, 4층 (이도이동)

개업식 및 개업소연은 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H.P) 010-3692-0808

Tel) 064-722-0802

Fax) 064-722-080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 라 조 생 4년생
감 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 전 온 주 2년생
유 라 조 생 1년생
천 혜 향 1,2년생
감 평(레드향) 1,2년생
병 자 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리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병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연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